

상반기 매출 줄어든 면세업계, '유커 귀환'에 하반기 실적 기대

면세 업계, 상반기 매출 두 자릿수 감소... 영업익 2배 이상 성장 중국경절 연휴 맞춰 면세점 실적 반등 기대...이익률 개선 속도 ↑

6년 만의 유커(중국 단체관광객) 귀환으로 면세 업계가 하반기 실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면세 업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중국 보파리상(파이공)에 의존해 왔다. 이들을 모셔오기 위해 막대한 송객 수수료를 지불해 왔다. 덕분에 시장 침체기에도 매출 감소는 피할 수 있었지만, 영업이익은 갈수록 악화해 수익성 개선이 절실했다.

이에 면세 업계는 올해부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송객 수수료를 최소화했고, 그 여파로 상반기 매출은 줄고 영업이익은 극대화한 성적을 받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6% 감소한 1조5042억원을 기록했고, 영

업이익은 416억원으로 전년도(-892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 신라면세점은 상반기 매출이 33.7% 줄어든 1조3166억원, 영업이익은 148.7% 증가한 684억원을 기록했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상반기 매출이 37.2% 감소한 9963억원, 영업이익은 142.4% 성장한 64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파리상에 지급하던 송객

수수료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전체 매출은 감소했지만, 리오프닝 이후 동남아·일본 등 다국적 관광객과 내국인 고객 매출이 신장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증가하면 보파리상 비중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면서 수익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이 만들어지고 실제 수요가 발생해 실적으로 나타나기까지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면세 업계는 이르면 다음 달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간 이어지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본격

적인 턴어라운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국항공공사는 중국 국경절 연휴와 항공기 동계운항시즌(10월29일) 전후로 항공 수요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말까지 중국 노선 4500편 운항 및 72만명의 한·중 여객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찬술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단체 관광 재개가 시작되는 중국 휴일 기간인 9~10월 면세점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부터 업계의 송객 수수료 관련 공동 대응, 단체 관광 재개로 면세점 이익률 개선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용일기자**

고물가에 '세계 각국 간편식' 인기



속박과 항공료 등 계속되는 고물가로 휴가를 포기하는 '휴포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국적인 음식으로 여행의 감성을 즐기려 하는 '푸드드림'이 뜨고 있다. 식품외식업계는 인기 여행지의 음식을 구현한 이색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더미식(The미식)의 '요리밥 3종'을 최근 공개했다. 요리밥 3종은 태국·홍콩 등 세계 각국의 인기 리스 요리를 재현한 간편식 제품이다. '카오팍쌈빠룻'은 파일애플과 새우에 커리 향을 더한 파인애플볶음밥이다. 함께 출시한 '카오팍'은 안남미 식감을 살

린 밥에 국내산 붉은 대게살을 피시소스에 함께 볶았다. '주리우차오판'은 천연 향신료 팔각으로 풍미를 더한 홍콩식 돼지고기볶음밥이다. 더미식 요리밥은 더미식세프팀이 개발한 '프롭터스크래치'비법 레시피를 적용해 각 나라의 현지 맛을 살렸다. 하림의 '더미식 유니자장면'은 중국 '쓰부'의 전통 레시피 맛과 풍미, 식감을 그대로 상온 밀키트로 구현한 제품이다. 다진 돼지고기와 야채, 황갈색 전통 춘장으로 풍미를 살렸다. 함께 공개한 '요자이멘'은 중화풍 튀김면으로 직접 우린 닭육수와 야채 육수를 황금비율로 밀가루와 섞어 반죽하고 숙성해 튀긴 요리다. 크리스탈제이드는 홍콩식 딤섬 2종을 가정 간편식 형태로 마켓컬리에서 판매한다. '오리지널 소마이'는 국내산 돼지고기와 새우를 조합했다. '트리플맛 소마이'는 이탈리아산 트리플 페이스트와 오일을 함유해 풍미를 살렸다. CJ제일제당의 '베트남 쌀국수'와 '사천 마라탕면'은 이국적 면 요리를 간편식으로 재해석한 냉장면 제품이다. 베트남 쌀국수는 쌀가루로 생면죽을 만든 뒤 고온고압 방식으로 뽑아 내면서 익히는 CJ제일제당의 '실키 누들 공법'을 적용했다. 동남아시아 식재료인 레몬그라스와 각종 향신료로 베트남 특유의 향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사천 마라탕면'은 실제 마라탕 전문점에서 면 사리를 육수 수면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라탕에 잘 어울리는 육수수면을 구현했다. **오유니기자**

스웨덴 전기차 '폴스타'...한국서 테슬라 대항마로 뜰까?

폴스타, 출시 첫해 2000대 이상 판매된 최초 수입 브랜드



2021년 말 국내에 출범한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폴스타 2' 단일 모델 판매로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특유의 미니멀한 디자인과 함께 지속적인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꾸준히 상품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인기 비결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폴스타 2는 출시 첫해인 지난해 한국에서 2794대가 판매됐다. 한국 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출시 첫해

2000대 이상 판매된 브랜드는 폴스타가 유일하다. 올해 누적으로 한국에서 지금까지 3500대가 팔렸다. 폴스타 2 인기는 테슬라처럼 지속적인 OTA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OTA는 무선 통신을 통해 차량을 업데이트하는 기능으로, 출시 이후에도 차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거나 최신 기능을 장착할 수 있는 점만 가능하다. 폴스타코리아는 지난해 1월 폴스타 2를 선

보인 이후 현재까지 '8번'의 OTA 업데이트를 통해 총 38가지 항목을 개선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폴스타는 내달부터 3단계의 OTA 업데이트를 통해 폴스타 2의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9월엔 티맵(TMAP) 서비스가 고도화되며, 10월엔 AI 플랫폼 누구(NUGU) 2.0도 적용된다. 올 12월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웨이브와 차량 내에서 전기차 충전 결제까지 가능한 간편 결제 시스템 '인 카 페이먼트(In Car Payment)'가 도입될 예정이다. 미니멀한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도 폴스타 2의 매력 포인트다. 이 차는 센타페시아에 위치한 11.2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네비게이션과 공조 장치, 핸들 조작 감도까지 사실상 '차의 모든 것'을 설정할 수 있다. 한국인에 친숙한 TMAP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기본 탑재돼 편리함을 더한다. 입증된 안전성도 국내 판매 증가에 한몫했다는 평이다. 폴스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된 15만대의 폴스타 2에서 단 한 건의 화재 사건도 보고 되지 않았다"며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OTA를 통해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폴스타는 향후 라인업 강화로 한국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준대형 SUV 폴스타 3와 중형 SUV 폴스타 4의 한국 출시가 내년에 예정돼 있다. **이슬비기자**

지방 아파트값 1년3개월 만에 상승 전환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이후 집값 반등 지역이 서울에서 수도권,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급매물 소진 이후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가운데, 지방도 1년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온기가 돌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7% 상승했다. 전부(0.04%)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이 0.14% 상승하며 전주(0.09%)보다 상승 폭을 키웠고, 수도권도 전주보다 0.04%p(포인트) 높은 0.12%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성동구(0.25%), 용산구(0.21%), 마포구(0.20%) 등이,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37%), 강남구(0.20%) 등의 상승률이 뚜렷했다. 경기도는 전주보다 0.04%p 오른 0.12% 상승했다. 과천(0.46%)과 화성(0.44%), 하남(0.42%), 성남 수정구(0.37%) 등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0.06%)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2%p 줄었다. 최근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한 지방도 0.02% 상승하며 지난해 5월 첫째 주 이후 68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5대 광역시(0.02%), 8개도(0.02%), 세종(0.08%)이 모두 오르며 지방 집값도 1년 3개월여 만에 상승했다. 전국 전셋값도 0.07% 올라 전주(0.04%)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서울(0.15%)

과 수도권(0.15%)이 각각 0.04%p, 0.05%p 올랐다. 하락세를 유지하던 지방도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주택매매심리도 상승세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114.1)보다 2.9p 오른 117.0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 지수가 상승국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4월(116.0) 이후 15개월 만이다. 국토연구원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일각에선 급매물 소진 이후 아파트값 반등지역이 서울에서 수도권, 지방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집값의 추세적인 반등을 전망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거래량도 예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고, 하반기 금리 인상 등의 변수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상승지역의 국지적 현상을 본격적인 집값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이 늘고, 집값도 상승했으나,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일부 상승지역에서 신축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뤄진 국지적 현상으로 보인다" 설명했다. **뉴시스**

'AI로봇시대' 성큼... "서빙은 기본, 승강기 타고 불도 끈다"

자율주행 로봇, 실외 이동 허용...일상속 활약

우리 일상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찾아보는 건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이 어려웠던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돼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의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 자율주행 로봇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통행 인구가 많은 지하 쇼핑센터부터 구형 민원실, 대학 캠퍼스까지 일상 곳곳에 진출해 활용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 쇼핑센터에서도 자율주행 로봇이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유진로봇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AI(인공지능)·5G기반 대규모 로봇실증사업'을 통해 경기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물건을 이송하는 작업에 자사의 자율주행 물류로봇 '고카트(GoCart)'를 투입했다. 고카트는 유럽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ISO 13482 인증을 국내 모바일 로봇 가운데 최초로 획득했다. 안정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자율주행 물류로봇이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병동에서 약품을 운반하고 수술실 도구들을 멸균 처리하는 시스템에 이송하는 셔틀로봇으로 활용됐다. 고카트는 지하상가 내 위치한 점포들 간의 물건을 배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해 로봇을 호출하면 경로를 지정하고 물품을 실어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자율주행 기능도 함께 적용됐다. 사업기간 동안 고카트는 단계별로 2대씩, 총 4대가 설치돼 상가 인근을 운행한다. 뉴빌리티는 세븐일레븐과 함께 서울 방배동 일대와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를 중심으로 10

월말까지 로봇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배동에서는 기존과 세븐일레븐 앱을 포함한 배달주문 플랫폼에서 서비스 점포를 선택해 주문하는 방식이다. 고객들은 주문 시 전액 쿠폰으로 현금 받아 무료로 로봇배달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건국대에서는 뉴빌리티가 출시한 로봇배달 전용 플랫폼 '뉴비오디'를 활용해 최소주문금액 없이 배달비 1000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비오디에는 건국대 인근 세븐일레븐 점포 2개를 포함해 약 10여개 점포 식음료 매장이 입점했다. 뉴빌리티 자율주행 배달 로봇 '뉴비'는 카메라와 센서 기반으로 안정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복잡한 도심 환경 속에서도 위치 확인과 주변 사물 인식, 회피 주행이 가능하다. 엘리베이터(승강기) 타는 '서빙로봇'도 있다. 서비스로봇 토탈 솔루션 기업 알지티의 서빙로봇 '써벗'은 빌딩의 각층을 넘나들며 이동할 수 있다. 알지티는 엘리베이터·자동문과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단층 주행에 그쳤던 가동 범위를 빌딩 내 상하 이동으로까지 확대했다. 호텔, 스마트빌딩, 아파트, 병원 등 다층 빌딩의 입체 환경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써벗은 엘리베이터와의 연동을 통해 층간 이동이 필요한 빌딩에서 자유롭게 주행을 할 수 있다. 사람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직접 배달이 가능하다. 특히 써벗의 경우 투명한 자동문과 유리창이 많은 빌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다.



소방용 사족보행 로봇도 개발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소방용 사족보행 로봇 2종 개발을 추진한다. 이들은 '소방용 사족보행 로봇 기반 인명 탐지·화재 진압 솔루션 개발 및 소방 로봇·센서 실증' 관련 정부 국책과제에 공동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공동연구개발 기관으로서 인명 탐지와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용 사족보행 로봇 2종의 상세사양 선정부터 각 로봇의 시제품 개발, 솔루션 통합 사업을 주도해 추진한다. 또 소방용 사족보행 로봇 플랫폼 운용 성능의 고도화·신뢰도 향상 관련 사업 등을 담당한다. 소방용 사족보행 로봇 기반 인명 탐지 및 화재 진압 솔루션은 재난 상황에 최적화된 소방용 사족보행 로봇 개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인명탐지를 할 수 있도록 현장 급파, 실내 진입 용 문 열기, 가스 밸브 개폐 작업 등 신속한 초동대처를 수행하도록 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소방용 사족보행 로봇이 효과적으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화재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바로 진화하는 기술을 적용해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수층, 산소통, 유압 장비 등 중량물을 해당 로봇에 탑재해 소방대원을 대신해 운반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 계획이다. **서선욱기자**